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에도의 멋, 장려한 돌들의 배치



국가 지정 명승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기념 스탬프 날인란

- 개원 년월일
1924년 4월 20일
- 개원 면적
43,175.36㎡
- 개원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12월 29일 ~ 1월 1일)
- 무료공개일
미도리(녹색)의 날(5월 4일)
도쿄도민의 날(10월 1일)
-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토·일요일(오후 2시)

【문의처】

구시바리큐온시 정원 서비스센터
전화 03-3434-4029
우편번호 105-0022
東京都港区海岸(미나토구 가이간) 1-4-1

입 장 료	개인	단체 (20명 이상)	연간 패스포트 (구시바리큐온시 정원)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일반	150엔	120엔	600엔
65세 이상	70엔	50엔	280엔	2,000엔
무료	초등학생 이하와 도쿄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생 신제장애인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보호복지수첩 또는 요육수첩을 지참하신 분 본인외 시중드시는 분			

시 설	개장 시간	※도구는 각자가 지참하십시오. 또한 지도원은 없습니다.
	공도장 (화공 전용)	9:00 ~ 16:00 140엔 / 1시간

*정원을 관람하실 때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월요일(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의 오전은 정비 작업을 실시하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공도장은 매년 연말연시에 걸쳐 장내정비를 위해 일정기간 쉽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전철》
JP아마노테선·게이힌토호쿠선 '하마마쓰초'에서 하차, 북쪽 출구에서 도보 1분
도메이 아사쿠사선·오에도선 '다이몬'에서 하차, 도보 3분
※주차장은 없습니다.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시거나, 정원 안에서 동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돛자리 등의 사용, 주류 반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 건물 및 청경물의 보호를 위해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케치를 사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 하마리큐 온시 정원
-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리쿠기엔 정원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무코지마 백화원
- 기요스미 정원
- 구 후루카와 정원
- 도노가야토 정원

에도 산책

고이시카와 고라쿠엔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주 정원 중의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연못을 중심으로 하는 회유식 정원'으로, 땅의 구획과 돌의 배치가 일품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은 바다였으나 메이레키 시대(1655~1658)에 매립되고, 1678년에 당시 장군 밑에서 정치력을 맡았던 오쿠보 다다토모의 저택 부지가 되었습니다. 다다토모는 저택을 지을 때 오다와라에서 정원사를 불러모아 만들게 하였으며, 이것을 '라쿠쥬엔'이라 명명했습니다.

그 후 몇 대를 거치면서 에도막부 말기에는 기슈 도쿠가와가의 저택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 황실인 아리사가와노미야가의 소유가 되었으나 1975년에 궁내성이 이를 매입하여 다음해에 시바리큐가 된 것입니다. 1923년의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과 나무들이 소실되었는데 다음 해 1월 에 쇼와천황의 결혼을 기념하여 도쿄시(도)에 하사되면서 정원의 복구와 정비가 추진되고 같은 해 4월에 '규시바리큐온시 정원'으로서 일반공개되었습니다. 1979년6월에 '규시바리큐정원(문화재로서 지정된 명칭)'으로서 나라의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이코노 쓰쓰미(독)

중국의 항저우(현재의 저장성)에 있는 서호(西湖)의 독을 본뜨고 돌로 만든 독입니다. 독의 전방에 위치하는 나카지마 섬에 배치된 돌들은 '라쿠쥬엔' 당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나카지마 섬

연못 중앙에 위치하며 정원 경관의 핵심을 이루는 섬입니다. 중국에서 신선이 사는 불로불사의 땅으로 여겨진 영산을 본뜨고 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자와 거망꽃나무의 흥겹



←다케시바 부두 방향

하마미쓰초역 방향→

휠체어 동행 루트

0m 30m

가레타키(가상폭포)

산협을 따라 떨어지는 폭포를 방불케 하도록 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바닥이 통로가 되어 있어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야마

정원 안에서 가장 높은 석가산으로, 정상에서의 조망이 볼 만합니다. 또한, 좌우의 석가산과 어울려 구성된 능선의 변화는 연못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야마에서의 조망

다이센스이

정원의 핵심을 이루는 넓이 약 9,000㎡의 연못입니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끌어들이던 조수 연못이었지만 지금은 담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못에는 나카지마 섬과 우키시마 섬을 배치하여 바다와 호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일각에는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등봉

등나무시렁

정원 입구 부근에는 커다란 등나무시렁이 있습니다. 5월 초순 경에는 보라색의 큰 꽃송이가 매달려 향기를 풍깁니다.